

〈아테네의 불쌍한 사람들〉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7/30(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17:16-31

1.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명예, 지식을 우선시 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실제 의미는 ‘distressed’ 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16절)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경험해 보았는지 물어봐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 1번 질문은 짧게 나누고 2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2. 아테네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배출되고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지만,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특징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밑줄 부분 참조)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본문의 밑줄 부분)

1.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2. 천지의 주재시다
3.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4.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5.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공급자이시다.

위의 특징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면, 2번 질문은 모든 목원들이 한번씩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복음에 대한 바울의 명확한 설교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품어야 할 그 사람에 대해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결단을 스스로 해봅시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겠다 하니”(32절)

① 조롱하는 사람

② 다시 들겠다고 요청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누게 해 주시고, 혹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면 목장예배 시간을 통해 ‘나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보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것을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